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루계 제2560호】

주체108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음력 8월 2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승리의 대로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한데 대하여 찬양하면서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승리를 확언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지금으로부터 71년전인 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땅우에 강위력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오늘도 사회주의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갖은 제재봉쇄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대수령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을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령활한 지략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고 격찬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헤껠레 깔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본보기로 되였다.

지난해 조선에서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시위한 대정치축전이였다.

조선의 존엄과 위력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자주의 기치,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전 네팔정부 부수상인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마이날리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70여년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온 조선은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며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라고 강조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요제프 쎄르비스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선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은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제재와 압살책동에 매여달리고있지만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식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조선인민의 불변의 신념이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은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도전에도 굴함없이 승리의 대로를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장장 70여년간 자력갱생으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온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자력갱생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을 끊임없이 동경하면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지난 6월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는 《자력갱생은 자주권과 세계평화의 담보》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0세기 걸출한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었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체의 군력을 강화하게 한 선군정치는 세계평화의 견지에서 볼때 자력갱생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고 주장하였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건국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 나라 인민들이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후복구건설에 힘차게 떨쳐나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불과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억척으로 다져놓았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처럼 어렵고 시련많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년대와 년대를 이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는 자력갱생이야말로 백승의 무기이고 승리의 원천이며 번영의 보검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오늘 공화국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이 제재압박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지만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였기에 공화국은 두려운것없이 자기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 땅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도처에 일떠선 자력갱생의 빛나는 창조물들, 이 시각도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공화국의 여러 건설장들에서 적대세력들의 강도적인 제재봉쇄를 짓누르며 창조되는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억센 신념을 간직한 사람들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공화국인민들은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이 땅우에 부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오신명

인민사랑의 열풍이 차넘치는 나라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사회주의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류의 리상향이라고 격찬하고있다.

인디아의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신문사 주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주석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은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실업자라는 말자체가 없고 누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국가가 꾸려준 문화회관들과 휴양소, 정양소들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거기에서 일할 근로자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건강문제를 먼저 관심하고 풀어주는것을 철칙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취취》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인민적시책이 진한 전형적인 나라라고 서술하였다. 비교적 조선에 대해 옳게 투시한 글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가 평가해온 강국들은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 자원이나 재부, 지정학적위치의 유리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였다.

그러나 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다. 조선이야말로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현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사람 그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여도 모두가 첫마디부터 자기 령도자에 대한 흠모심과 고마움을 토로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결의를 피력하는것이다. 서방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리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허나 조선에 가보면 그 리유를 쉽게 알수 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좋은 래일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는 인민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비롯한 구호들,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사랑의 열풍이 차넘치는것이 바로 조선식 사회주의의 특징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송림김치공장 준공식 진행

송림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준공되였다.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김치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품인 김치를 공업적으로 생산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각 도들에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건설자들은 인민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공사를 다그쳤다.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사를 임혼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맛좋은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공장이 은을 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김치공장을 돌아보았다.

황해남도양로원, 양생원 준공식 진행

황해남도양로원, 양생원이 새로 일떠섰다.

신원군 신창리의 풍치수려한 곳에 특색있게 건설된 양로원, 양생원에는 치료실, 오락실, 운동실, 식사실 등 보양생들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준공식이 17일에 진행되였다.

리철만 황해남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설계형성안도 보아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양로원, 양생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 비품들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운영을 짜고들며 보양생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로원, 양생원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황해남도양로원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

오늘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앞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들을 짓부시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겨레가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우리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옳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외세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자주정신이 강하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자랑높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외세에 의해 강토가 둘로 갈라지고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자주적립장이야말로 통일의 기본립장이며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장장 70여년동안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침략적인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이 있을뿐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에게 눌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 그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중요하게 기인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는 하나의 강토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자주적지향이 비껴있다.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려는 겨레의 앙양된 열의를 하나로 합쳐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민족의 기상은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이며 남조선에서 외세의존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것은 민심의 요구로서 여기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조국통일의 길은 의연히 복잡다단하지만 분렬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의 력사를 자기의 힘으로 새롭게 써나가려는 겨레의 강렬한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때 조국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 채화된 봉화는 올해 11월 이딸리아에서 열리는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장의 봉화대에 지펴지게 된다.

의식에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를 비롯한 위원회 집행위원들, 성원들,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표, 여러 나라 무도대표들과 조선무술련맹 위원장인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태권도인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의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무도운동이 친선, 협조, 발전의 리념밑에 무도인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며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에 이바지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무도인들과 각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리용선위원장이 경기대회에 보내는 횃불봉을 봉화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봉화수들이 채화한 횃불봉을 들고 청춘거리의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는 근로자들

9월의 이 땅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에 대한 우리 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김정숙녀사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70년이 되였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녀사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는 사실은 그이의 고귀한 생애와 공적에 대한 세인의 흠모와 칭송의 반영이다.

력사는 이름난 녀성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지만 김정숙녀사와 같이 서른두해라는 길지 않은 생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처럼 고귀한 업적을 남긴 걸출한 녀성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김정숙녀사의 생애는 나라의 해방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한생이였다.

나라잃은 민족의 피눈물나는 설음과 생활고초를 겪으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의 뜻을 지니신 녀사께서는 10대의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였다.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 들어서신 녀사께서는 처창즈유격구방위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싸움마다에서 높은 희생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 사령부의 전략전술적 의도를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로령전투와 시난차전투, 홍두산전투 등 일제침략자들을 통쾌하게 짓부신 수많은 전투들마다에는 무비의 담력과 림기응변의 지략, 신묘한 사격술로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으신 녀사의 위훈이 깃들어있다.

군사활동에서뿐아니라 정치활동에서도 능숙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장백현 도천리와 신파, 연사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시여 적극적인 지하정치공작활동을 벌리시였다. 그때마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비상한 조직적수완, 원숙한 공작활동으로 사령부의 의도를 훌륭히 관철하신 녀사의 혁혁한 무훈은 《녀성호걸》, 《백두산항일녀장수》, 《백두산녀걸》이라는 존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사의 갈피마다에는 녀사께서 왜놈들의 《토벌》로부터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시고 열병에 걸린 부엌데기소녀를 완쾌시키기 위해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일화들과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펄펄 끓는 죽가마를 이고 달리시여 유격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신 사실 등 인민들과 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김정숙녀사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양과 남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사랑하는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 도 복구건설로 들끓는 공장들을 먼저 찾으시였으며 대자연개조사업의 앞장에서 몸소 가래질도 하시고 질통도 지시면서 광범한 대중의 건국열의를 북돋아주시던 녀사의 열렬한 애국의 숨결, 거룩한 발자취는 새 조선건설로 약동하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규무력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원호사업이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되였을 때 녀사께서 조국보위기금회사업에 앞장서신것만 보아도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는것이다.

어느날 녀사께서는 댁의 조국보위기금회사명세를 만드시였는데 외국의 한 대사가 기증한 2개의 은초대, 외국의 한 부인이 선물한 합금장식의 화장품통 그리고 지방에 파견되여 일하는 한 일군이 올린 보약들이 명세에 들어있었고 가정에서 식사량을 조절하여 기금헌납에 쓴다는것까지 적혀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잘했다고 만족해하시며 조국보위기금회사는 수상네 집이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지체말고 조국보위후원회에 헌납하자고 하시였다.

그후 댁의 진지상에는 잡곡이 전보다 더 많이 섞인 조밥과 가지수가 적은 식찬이 올랐다.

평양학원을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들과 인민군부대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무력건설구상을 받드신 김정숙녀사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김정숙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가장 특출한 업적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올리신것이다.

녀사께서는 항일대전과 새 조국건설의 격동적인 나날 뜨거운 지성과 로고를 다하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민족의 향도성으로 받들어올리시였다.

우리 겨레가 대를 이어 위인복을 누리며 민족자주위업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도록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인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고귀한 생애

자주독립과 통일, 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투쟁력사의 갈피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공적이 빛나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에 참전하시여 조국해방위업실현에 공헌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 나날 해방의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던 삼천리강토에는 외세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졌으며 따라서 우리 겨레앞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과제가 나섰다.

민족분렬의 비운이 질어가던 그 시기 김정숙녀사께서는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피흘려 싸운것은 온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는데 남조선인민들을 외세의 구두발밑에 그냥 두고서야 어떻게 발편잠을 자겠는가고 하시며 항일의 전장을 누비시던 그 모습으로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길을 걷고 걸으시였다.

나라가 해방은 되였으나 남북이 갈라지고 정세가 복잡한데 어찌 한시인들 제자리를 떠나겠는가 하시며 일가친척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신 녀사이시였다.

새옷을 하나 해입으시라고 권하여도 통일이 되여 온 겨레가 다같이 잘 입고 잘 살게 될 때 좋은 옷을 해입자 하시였으며 사진을 한장 찍으시자고 권고드릴 때에도 통일후에 남녘동포들과 함께 찍으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만류하신 김정숙녀사이시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녀사의 열망은 그처럼 뜨겁고 강렬하시였기에 언제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때가 없으시였고 모든 사색과 활동은 통일에로 지향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농촌들을 찾으시였을 때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짓는 농민들을 보시면 동이로 물을 길어 농사지을 남녘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으며 남녀평등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녀성들을 대할 때면 외세의 학정아래 신음하는 남조선녀성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생각하시며 민족분렬의 비극과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가슴아프게 절감하시였다.

하기에 녀사께서는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애국투쟁에 온 겨레가 적극 나서도록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그 나날 녀사께서는 남조선의 몽양 려운형선생을 비롯하여 북을 찾아온 남조선의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정의로운 애국활동을 적극 고무격려하시고 생활도 일일이 보살펴주시였다.

려운형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평양에 왔을 때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그가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성심성의로 그의 류숙을 보살펴주시였다.

그에게 끼마다 색다른 음식 한가지라도 더 대접하도록 마음쓰시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돌보아주시였다.

김정숙녀사의 준수한 기품과 후더운 인정미에 감복한 려운형선생은 후날 국내외의 한다하는 녀걸들과 녀류명사들을 많이 보았지만 김정숙녀사 같으신분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다고 심중을 터놓았었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 공을 세운 많은 녀걸들과 녀류명사들이 있지만 김정숙녀사처럼 손에 무장을 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며 싸운 녀장군, 나라의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민족자주위업에 한생을 바쳐 고귀한 업적을 남긴 탁월한 녀성활동가를 알지 못하고있다.

1949년 9월 23일부 《로동신문》 2면에는 다음과 같은 애도문이 실리였다.

《… 조선인민이 낳은 우수한 딸들중의 한사람이며 일제의 탄압이 가혹하던 시기에 항일무장운동에 시종일관하게 용감스럽게 참가한 영예스러운 애국적조선녀성중의 한사람인 김정숙동지는…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김정숙동지는 자기의 전 생애를 조국과 인민과 그를 길러준 자기의 당에 충직하게 바치였다.

조국과 인민과 자기의 당에 충직한 그의 전 생애는 전체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될것이다.》

나라의 독립과 부강발전, 통일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주체38(1949)년 9월 22일 만 서른두살을 일기로 너무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시였다.

김정숙녀사의 서거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겨레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통일성업에 바친 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녀사께서는 나라와 민족앞에 남기신 불멸의 공적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설

비범한 창조의 세계

오늘날 새로 건설되는 거리나 문화시설들을 비롯한 인민의 소유물, 나라의 재부들에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창조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새것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강렬한 지향과 완강하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 대담하고 통이 큰 실천이 그이의 비범한 창조의 세계이다.

하나를 창조하여도 그것이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기념비적인것으로 되도록 구상하시고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대한 변혁을 설계하고 실천하시는 그이의 령도는 약동하는 공화국의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건설된 려명거리, 마식령스키장,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과학기술전당,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 등 수많은 창조물들은 물론이고 새로 건설되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보아도 그이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비범하고 심원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벌써 자기의 자태를 완연히 드러내였다.

대상물골조공사와 지붕씌우기공사, 내외부미장공사가 끝나고 스키장주로닦기와 도로개설, 수로공사 등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여 온천지구가 그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다.

얼마전 건설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지대적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였다고 하시며 구획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창조되였다고,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 남은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재치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신대로 오늘 양덕군은 스키운동과 관광, 온천치료와 휴양을 겸한 다기능체육문화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변모되고있다.

새롭고 독특하게 형성되고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떠서는 온천관광지구에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인민사랑과 창조의 세계가 비끼여있다.

그이의 사색과 활동은 창조로 일관되여있다. 그이께서는 모든 문제를 창조적안목에서 대하고 구상하신다. 그이께서 의도하시는 창조물들은 어느것이나 다 그 내용과 형식, 특징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이다.

창조의 생명력은 새것의 발견에 있다.

창조와 모방에 대하여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명답을 내놓으시였다.

모방은 앵무새처럼 남이 해놓은것을 흉내내거나 그대로 본따서 만든것이다. 창조가 발견이고 성공이라면 모방은 반복이고 실패이다.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선물하는것은 나의 행복이며 삶의 방식이다. …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등 모든 건축물들을 새롭고 특색있는 창조물로 건설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창조의 세계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구상하시여도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발견하시는 비범한 건축학적예지가 빛발치고있으며 부단히 새것을 지향하는 인민의 요구가 비끼여있다.

끊임없는 사색과 혁신적안목, 불같은 열정으로 새것을 착상하시고 인민의 리상과 요구에 맞게 창조하는 완강한 실천력,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기질, 창조방식이다.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그이의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특색있는 온천관광지구도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미래를 창조하는데 불같은 열정을 다하시는 그이께서는 몸소 현지를 찾으시여 온천지구의 환경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온천지구개발과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후 여러차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관광지구를 료양소구획과 관광휴양구획으로 나누어 건설하는데 맞게 설계작성을 잘하는 문제로부터 공사의 단계별목표를 바로 정하고 립체적으로 다그치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한개 도시구획형성과도 맞먹는 방대한 온천관광지구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어제날 이름없던 한적한 산간지대가 오늘 온천도 하고 스키도 탈수 있는 다기능체육문화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천지개벽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 지금껏 체험하여보지 못한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가 창조되고있다.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과 비범한 창조의 세계는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재부들을 낳고 나라의 면모를 날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시키고있다.

방성일

자연의 재앙을 길들인 숭고한 인민사랑

얼마전 공화국의 전반적지역을 휩쓴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가 힘차게 진행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회복하였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전차선, 통신선전주복구가 결속되고 철길복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황해남도, 자강도 등 여러 피해지역에서 도로와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대상들에 대한 복구사업이 확대되고있다.

조선반도를 관통한 태풍13호는 강한 중형급이였다.

자연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국가적인 비상재해방지대책을 토의하였다.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여 분석하신 그이께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인 후과를 최소화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전당적으로, 전군적으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당풍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태풍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일사불란하게 벌어진것이다.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불굴의 기상으로 기적을 창조하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숨결이며 발걸음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에 의하여 태풍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가셔지고있다.

홍결

자위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오늘 첨단수준에 올라선 공화국의 국방공업의 위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전체 인민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져주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하루, 한시도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한 압살야망을 포기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밀려오던 전쟁의 난파도가 공화국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건드리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날아났으며 세계도처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배회할 때에도 이 땅에서만은 평화와 안정이 수호되고있는가.

그것은 공화국에 천출명장이 계시고 나라의 군력이 강하기때문이다.

공화국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국가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인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무적의 총대로 사회주의국가와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실 웅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험로역경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시였다.

나라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린 첨단무장장비들을 개발완성하기 위하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국가방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최악의 제재봉쇄속에서 보통의 담력과 의지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대업을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회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무적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탄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김정은각하는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으로 쳐갈기시며 조선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탁월한 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력은 무한대하다.》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김영란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정룡으로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조국통일은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위업이였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지론이였다.

지금도 우리 겨레는 범민족대회를 마련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을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잊지 못하고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성숙된 정세의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포괄하는 범민족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그후 북과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였다. 민족이 분렬된이래 처음으로 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파탄시키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악랄하였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을 따르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마침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첫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삼천리강토에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격류가 세차게 굽이치고 겨레의 통일열망이 날로 높아가던 그해 11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강토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그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북측본부 일군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예정되였던 제5차 범민족대회를 당시의 환경에서는 그만두는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있었다.

그러한 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고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세계에 일군은 감복을 금할수 없었다.

그후 범민련 북측본부는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것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라 북과 남, 해외에서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대회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기상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범민족대회뿐이 아니다. 해내외 각계각층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된 수많은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밑천이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은 오늘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와 난관이 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삼천리강토우에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우뚝 일떠설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민

통일애국의 기치를 더듬어 (7)

대민족회의소집을 위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에 기초한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면서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매달리였다.

특히 박정희독재《정권》은 북남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왔다. 이 《특별성명》이라는것은 외세에 추종하여 국제적으로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고 영구분렬을 기정사실화하자는것으로서 사실상 7.4공동성명의 원칙들을 뒤집어엎고 민족분렬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반통일선언이였다.

민족의 앞길에 무겁게 드리운 영구분렬의 새로운 위기를 절감하며 온 겨레가 분격을 금할수 없었던 그 시각, 남조선당국자가 매국적인 분렬성명을 발표한지 불과 몇시간만에 평양에서는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조국통일5대방침이 온 세상에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2(1973)년 6월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당시)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여온 일관한 애국애족적립장을 구현한것이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위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며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이 천명됨으로써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았으며 내외반통일세력들이 꾸며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그것을 승리에로 종착시킬수 있는 위대한 강령》이라고 하면서 《동강난 조국을 잇기 위하여 5대강령실현에 힘쓰자.》고 주장해나섰다.

세계도처에서도 조국통일5대방침을 《통일도상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 《조선문제해결의 리상적이며 실천적인 해결의 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이 통일방안에 당장 호응해나서야 하며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 대화의 폭을 넓히는것이였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실현하며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당시 북과 남의 대화의 전과정은 북남조절위원회와 같은 쌍방의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을 통하여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북남조절위원회 남측대표단이 외세에 매달려 《두개 조선》조작과 민족분렬의 영구화책동을 감행하는 남조선당국의 리익만을 대변하고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대화의 폭을 전민족적범위에로 넓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에서 광범히 협의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5대방침에 밝혀진 대민족회의소집을 통일문제해결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1973년 7월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는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신중히 토의하고 통일의 일념을 담아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제의하면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은 대민족회의가 조국통일5대방침의 실천적대책들을 토의하며 특히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문제와 북과 남이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것이라는것, 대민족회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전민족대회로 되여야 할것이라는것을 밝혔다. 또한 호소문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회의장소는 평양으로 할것을 주장하면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이나 국내의 임의의 장소를 선택할수 있다는것,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실무급회의를 시급히 열고 거기에서 북남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접촉을 활발히 진행할것 등을 밝히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정부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에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는것으로써 대답하여나섰다.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대민족회의소집안을 극력 반대하면서 분렬주의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이 민족적협상의 마당에 나오도록 하는 한편 남조선당국에 대민족회의와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1974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1차확대회의는 대민족회의소집방침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고 대민족회의를 쌍방의 합의밑에 1974년안으로 판문점 또는 우리 나라의 다른 곳에서 열것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제의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북남조절위원회 북측공동위원장은 7.4공동성명발표 2돐과 3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범죄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즉시 취소하며 《반공》소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북남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올것을 엄숙히 요구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 북남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를 소집할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제의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와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수기

아버지의 소망 (3)

나의 아버지(태을민)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 생활한 기간은 2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의 한생에서 결코 길지 않은 그 나날에 아버지는 백년을 살아도 다 받지 못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았다.

지금도 귀전에는 생전에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쟁쟁히 들려온다.

《얘들아, 대체 내가 누구냐? 저 남녘땅에서 일곱번이나 극단을 옮기며 참다운 무대를 찾아 부평초처럼 떠돌던 〈연극쟁이〉에 불과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인민배우 태을민이 되였다. 난 설사 숨이 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무대를 떠나지 않으련다.》

어떻게 하면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운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대는 곧 생활의 락이였고 기쁨이였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는 긍정인물역보다 부정인물역을 더 많이 한 성격배우였다.

지금도 예술영화 《홍부전》이 나온 다음에 있은 일이 생각나 절로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속을 태우던 나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때 아버지가 《놀부》역을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게 했는지 내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저마다 《놀부딸이 왔다.》고 놀려주군 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지의 편역을 들면서 대들기도 하고 못 들은척 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이 나서 놀려주니 어린 마음에도 은근히 화가 동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 한가운데 책가방을 밀어놓으며 밸을 부리였다.

《아버지, 그 〈놀부〉인지 하는거 그만두세요. 아버지가 계속 그러면 난 학교에 다신 안 갈래요.》

볼이 잔뜩 부어가지고 하는 내 말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달래였다.

《지애야, 나쁜것은 미워하고 좋은것은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란다. 아버지가 연기를 잘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수 있단다.》

사실 아버지도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놀부다!》고 불러주는바람에 한동안 색안경까지 끼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는 원래 마음씨 무던하고 고지식한분이였고 불의와 타협할줄 모르는 곧은 성미였다. 그런데 심술사납고 욕심많은 놀부의 형상을 하자니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는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울에 서서 자기 모습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며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이였다.

어머니와 우리 자매들은 전에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원래 배우인 아버지여서 집에 들어오면 대사훈련과 역형상훈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만은 별스러웠다.

한참동안 자기 모습을 살펴보던 아버지가 《여보, 당신보기엔 어떻소? 내가 그래 나쁜놈처럼 생겼소?》라고 묻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일은 그것으로 끌나지 않았다. 그길로 아버지는 단장을 만나서 하소연했다.

《이제 조국이 통일되면 내 고향 서울에 가서도 출연해야겠는데 부정역만 하는 날 보면 고향사람들이 뭐라겠습니까? 이제부터 나에게두 긍정역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 단장은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아버지는 늘 동료들에게 나의 가슴에는 공화국에 대한 고마움이 꽉 차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내가 맡은 역을 잘하는 길이다, 그게 긍정인물이든 부정인물이든 일단 나에게 맡겨진것은 훌륭히 수행해야 할 의무만이 있다고 이야기하군 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연기훈련을 하여 우리 딸들을 놀래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아버지는 관중들의 사랑을 받는 관록있는 배우였지만 역형상을 위해서는 언제나 착실한 학생이였다.

늘 바쁜 아버지를 도와 난 밥심부름을 많이 했다. 밥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는 나에게 객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연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듣고 알려달라고 하셨다.

(우리 아버진 이름난 배우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꼭 들어야 하나?)

그때 열살안팎이였던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긴 맡은 역형상을 손색없이 완성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철부지였다.

과연 지칠줄 모르는 그 열정은 어디서 샘솟는것이였을가.

정전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연극 《리순신장군》을 공연할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출연을 앞두고 연막짬으로 초대석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정신없이 우러르다가 독촉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출연하였다. 아버지가 맡은 역은 리순신수하 장수였다. 그 장수가 리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리순신장군께 아뢰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만 흥분한 나머지 《김일성장군께 아뢰오.》라고 하여 관람석과 무대에 출연한 배우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한다.

웃음으로 넘길수 없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깊이 흠모하고있었는가를 잘 말해준다고 본다.

한때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견해로 아버지는 무대에서 내려올번 한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상을 다 뒤져도 그런 특기를 가진 훌륭한 배우를 어데서 찾아내겠는가, 그 동무야말로 우리가 아껴야 할 둘도 없는 보배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연극배우가 아니라 영화배우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게 하라고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아버지는 연극배우로부터 영화배우로 성장하게 되였다. 그때 아버지는 이 몸이 죽어 흙이 될 때까지 조국을 위해 깨끗이 살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공화국의 첫 예술영화인 《내 고향》을 비롯한 많은 영화와 연극들에 출연하여 긍정역과 부정역을 잘 형상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진정어린 박수갈채를 받군 하였다.

공화국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아버지는 1959년에는 공훈배우칭호를, 1962년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는 명배우로 자라났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9년 5월, 나를 조용히 부른 아버지는 좀 있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 결심인가고 물으셨다.

나는 깊이 생각해볼것도 없다는듯이 《아버지처럼 연극배우가 되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연극배우라? 그것도 좋지, 그러나 난 네가 문학을 했으면 더 좋겠구나.》

아버지는 생전에 문학을 몹시 사랑하셨다. 책방에 새 책이 나왔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군 한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체취가 진하게 느껴지는 그 책들이 지금도 우리 집 한쪽벽면을 가득 채우고있다.

아버지는 허허 웃음을 지으며 《됐다. 졸업후에 뭘 하겠는가는 좀 더 생각해보구 결심하자꾸나.》하시고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시였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대화가 될줄이야.

이틀후에 아버지는 영영 우리곁을 떠나가셨다. 그때 내 나이는 15살이였다.

《아버지!》

그처럼 인정많고 다심하고 열정적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나와 어린 동생들은 목놓아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운명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떠나간 전사를 추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을민동무는 우리 당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재능있는 배우였다고, 참으로 아까운 배우를 잃었다고, 그는 고향이 남반부이기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아버지는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 고향을 포함하여 삼천리를 뜨겁게 안으시고 겨레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삶의 품,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품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장이 멎었다는 비보를 접하시고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수 없으신듯 장례식장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로 향하시였다.

그런데 서평양철다리를 지나 굽인돌이길을 넘어서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도로수리로 길우에는 온통 자갈무지와 흙무지천지였던것이다. 게다가 전날밤에 내린 비로 길이 너무 험해 차가 더는 앞으로 나아갈수 없었다.

일군들은 장군님께 장례식을 빈틈없이 조직하겠으니 되돌아가시자고 말씀을 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되돌아가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태을민동무와의 마지막리별의 길인데 어떻게 하나 가야 합니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갑시다.》라고 하시며 험한 진창길에 들어서시였다. 신발이 긁히우고 바지가 젖어들었지만 모든것을 느끼지 못하시는듯 장군님께서는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슬픔에 젖어 울고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태을민동무는 당에 충실한 동무였다고, 그가 남달리 예술을 열렬히 사랑한것도 당의 은덕에 성실히 보답하려는 뜨거운 충성심때문이였다고, 태을민동무가 평소에 간직했던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꽃피워주어야 하겠다고, 아이들을 당에서 맡아키우고 가족들이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주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그 음성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게 해주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 몸에 와닿았다.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시면서 공로있는 혁명가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불러주시였는데 거기에 영광스럽게도 나의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다.

나라에서는 새로 꾸린 애국렬사릉에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유가족들을 제막행사에 참가시키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그리고 이 애국렬사릉에서 아버지의 서거 40돐기념행사, 생일 100돐기념행사도 진행하도록 해주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아버지를 뜨겁게 회고해주시였고 우리 자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걸음걸음 보살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겨우 두살 잡혔던 우리 집 막내인 남동생(태일상)도 어엿하게 자라 지금은 중요한 위치에서 아버지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이것이 어찌 우리 한가정에만 돌려지는 사랑이랴. 남녘땅에 두고온 우리 혈육들을 비롯하여 남녘동포들에게 주고싶으신 절세위인들의 하해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서 누린 행복도 크지만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행복의 단상에 높이 서있는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는 복중의 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행운아였다.

* *

아버지의 소망, 이는 단지 남녘땅에 두고온 혈육들을 만나고싶은 그리움만이 아니였다. 원한의 분렬장벽이 없어지고 북남의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였다.

그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자 우리 겨레모두의 소원이다.

그 환희로운 통일의 날에 나도 자식, 손자들을 거느리고 남녘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을 찾고 오랜 세월 상상속에 그려보던 남녘의 오빠, 언니와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리라.

태 지 애(태을민의 딸)

(끝)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원히 예속의 굴레를 씌우려고

미국이 지난 8월에 진행된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때 남조선당국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강박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당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미군장성이 사령관직을 맡고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당국에 작전지시를 하달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특히 평상시 국지전과 같은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겸하고있는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관리에 부합되는 교전수칙에 따른 지시를 남조선합동참모본부에 내릴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할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여기에는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틀어쥐려는 목적밑에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온것은 잘 알려져있다.

2018년 7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직에 미군장성이 아니라 카나다륙군중장을 임명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오스트랄리아해군소장을 올려앉혔으며 일부 참모들도 《유엔참전국》의 군인들로 교체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남조선군참모들을 더 많이 배속시키려 하는 등 《유엔군사령부》를 사실상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만들어 그 존재를 영구화하며 이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책동해왔다.

이번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남조선에 강박한 것도 이러한 책동의 연장인 것이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평시, 전시작전지휘권을 계속 틀어쥐게 되는 경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남조선군이 지휘하는 《미래련합군사령부》는 허수아비로 전락되고 남조선미국련합군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쥐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내에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이 평시위기때 작전지시를 내린다는것은 남조선군에 대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전시는 물론 평시작전지휘권마저 외국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남조선군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한것이다.

아무때나 남조선군을 저들의 탐욕적인 리익실현을 위한 대포밥으로 써먹자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인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남조선을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쇠사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한미동맹》의 미명하에 남조선에 영원히 예속의 굴레를 씌우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반미감정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어리석은 재집권야망이 발로

남조선당국자의 법무부 장관임명을 계기로 놀아대는 《자유한국당》의 추태는 가히 꼴불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현 남조선당국자의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 어느 장관임명때보다 더욱 완강히 반대하였었다. 그것이 저들과 관련된 적폐세력청산으로 이어질가봐 두려워해서이다. 하기에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족들의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사실인듯이 여론화하였으며 《국회청문회》에서는 정책문제보다 각종 의혹들을 부풀리면서 추악한 정쟁을 일삼았다.

저들의 항의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가 끝내 장관임명을 강행하자 보수패거리들은 당황망조하여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망》, 《상식과 정의의 실종》을 떠들면서 《해임건의안》제출과 《국정》조사추진, 항의집회로 맞대응하겠다고 떠들고있다. 지어 《자한당》의 이전 대표인 홍준표는 《이제는 문재인하야에 나서야 한다.》,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 100만명이 떨쳐나서 쵀불을 들고 반정부집회를 벌리자.》고 하면서 보수떨거지들을 선동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의 란동은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권력을 찬탈해보려는 필사의 몸부림으로서 지붕에 올라간 닭을 잡아보겠다고 마구 짖어대는 들개무리를 방불케 하고있다.

원래 보수세력들은 불법적인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하고 온갖 부정협잡을 일삼아온 파렴치한 범죄집단, 부패오물들이다.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한짓이란 남조선을 파쇼와 부정부패만이 란무하는 무법천지로 만든것뿐이다.

력대로 권력을 타고앉아 정의와 평등,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파렴치범들, 전대미문의 《국정》롱단사건으로 탄핵당한 역적무리들은 이미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했다. 이런 추악한 집단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국민을 입에 올리며 법치를 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민족반역무리들이 현 당국의 법무부 장관임명강행을 한사코 반대하며 소동을 피우는 여기에는 박근혜탄핵때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

구린내나는 적폐세력을 철저히 들어내지 않고서는 진보개혁은 교사하고 사회적갈등과 정치적혼란,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만이 더욱 가중되게 될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결코 초불민심이 바라는것이 아니다.

력사의 쓰레기통에서 기여나와 남조선사회에 온갖 해악만을 끼치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갈 곳은 민심의 심판대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암흑의 《유신》독재시대를 되살리려 한다

얼마전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굶어죽던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를 먹고살게 해준 지도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력사를 부정하는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 시기에도 황교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정희 역도를 극구 찬양하는 망발을 늘어놓아 듣는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지난 5월 그가 박정희의 고향에 기신기신 찾아가 《정파적인 리해관계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폄훼하는것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횡설수설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황교안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박정희를 얼마나 《숭상》하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

박정희가 어떤자인가.

1960년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에서 날로 거세차게 벌어지는 자주적평화통일과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사촉하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군사파쇼광이다. 또한 자기의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에는 《10월유신》을 조작하고 《유신》독재를 수립한 극악한 독재자이다. 당시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전역에 파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으며 《헌법》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당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으며 각 대학들을 폐쇄하였다.

박정희역도의 폭압통치는 그자의 집권 전기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뿐만아니라 박정희역도는 몇푼의 돈을 받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황교안이 박정희를 《먹고살게 해준 지도자》라고 추어올렸지만 역도의 집권기간에 남조선경제의 외세의존은 더욱더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영향속에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본을 따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멀리 갈것도 없이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박근혜도 집권기간 박정희 못지 않게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했는가 하면 천년숙적 일본과는 애비의 본을 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사대와 매국에 기승을 부렸다.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자주와 민주,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사회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것이 바로 박근혜역도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 최순실과 작당하여 여러 기업들에서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빼앗아내는 등 부정부패에서도 애비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를 찜쪄먹는 박근혜의 죄행에 분노하여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거리로 떨쳐나와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냈다.

력사는 박정희, 박근혜와 같은 극악한 파쇼독재광, 동족대결분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는다면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이 들씌워지고 북남관계가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결국 황교안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박정희역도를 찬양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황교안은 박근혜집권시기 법무부 장관과 《총리》자리에까지 앉았던 역도의 수하졸개이다.

그는 박근혜를 섬기면서 권력의 진맛을 보았으며 정치적반대파들과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독재자의 기질을 배웠다.

독재자의 손끝에서 놀아나면서 파쇼독재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맛》에 중독된 황교안은 지금 《유신》독재시대를 재현해보려는 개꿈을 꾸고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무작정 추종하는 인간쓰레기, 극우보수패당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남조선사회를 《유신》독재시대, 과거의 암흑시대로 만들려 하고있는것이다.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야망을 품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황교안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남조선사회가 또다시 과거의 독재시대, 암흑시대로 돌아가리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뻔한 일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남조선의 《자한당》이 내린 사형선고

남조선의 《자한당》이 청소년들에게서까지 저주와 환멸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청소년통일선봉대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 《자한당해체수자송》을 지어 불러 광범한 각계층의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킨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노래는 1부터 10까지의 수자풀이로 되여있다.

1.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신나는데
3. 삼촌, 이모 다 함께 웨쳐요.

《자유한국당》 해체해!
4. 사죄해! 《자한당》
5. 5.18력사외곡
6. 60억인구 모두 널 싫어해! 싫어~ 싫어!

사라져! 여기저기 말썽 피우지 말고 사라져~
제발 좀 우리 통일 방해 말고 지금 당장 사라져!
…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인터네트로 퍼지자 남조선의 각계층은 《우리들이 꼭 자한당 해체해서 너희들 세대에는 그런 놈들이 없는 세상 만들어줄게.》, 《아주 시원하다.》, 《기특한 아이들, 〈자유망할당〉 어른보다 천배만배 어른이로다.》 등의 대글을 달며 지지와 격려를 보내였다.

청소년통일선봉대는 지난 8월 14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 자주통일대회》에서 《자한당해체동요-만화주제가련곡》을 불러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천진하고 순결한 맑은 눈동자에는 진실만이 담기고 동심은 그 어떤 위선과 가식으로도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얼마나 못된짓만 골라하였으면 아이들까지 역적당에 등을 돌리고 그 해체를 요구하고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역적당이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민생, 민권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까지 처참하게 란도질하는 깡패집단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세월》호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차디찬 날바다에 수장시키고도 모자라 그들을 애타게 찾는 부모들을 《시체장사군》으로 모독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아름다운 꿈과 희망만이 가득차있어야 할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오죽했으면 《자한당》해체가 소원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였겠는가.

단 1초라도 보기 싫어 해체를 절규하는 청소년들의 노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자한당》에 내린 준엄한 사형선고이며 역적당을 매장하려는 민심의 반영이다.

남조선의 남녀로소가 한결같이 소원하는 《자한당》해체는 달리는 될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올림픽의 리념을 짓밟는 일본

2020년 일본에서 제32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체육애호가들이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고 체육발전을 추동하는 올림픽의 정신과 사명에 맞게 제32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그러나 이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일본당국의 음흉한 책동으로 하여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영상이 벌써부터 심히 흐려지고있다.

일본이 도꾜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지에 올려놓은 일본지도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뻐젓이 표기하였으며 올림픽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에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해놓은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독도는 왜인들이 원시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썩 이전시기부터 조선사람들이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업활동의 거점으로 삼아온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령토이다.

조선동해의 명칭 역시 고조선시기부터 우리 민족과 주변나라들에서 공식적으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던 이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력사사료들에 명백히 기록되여있으며 중세와 근대시기 조선사람들은 물론 일본인들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조선의 령토, 조선동해는 《동해》로 되여있다.

일본도 이에 대해 모르지 않고있다.

그런데도 아베일당은 지구상의 제일 큰 체육축전이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마당에서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우기고 조선동해명칭을 공공연히 외곡하려 하고있으니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올림픽을 리용하여 독도와 조선동해가 《일본땅》, 《일본해》라는 인식을 세상사람들에게 불어넣자는것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일본당국이 군국주의상징물인 《욱일승천기》(욱일기)를 올림픽경기대회의 행사들에서 사용할수 있으며 경기응원들에도 리용할수 있다고 우기다 못해 올림픽메달에까지 《욱일기》를 련상케 하는 무늬를 새겨넣은것이다.

《욱일기》는 1870년 일본륙군의 보병련대와 기병련대가 군기로 삼고 1889년에는 해군이 군함기로 지정하면서부터 일본군의 군기로, 일본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되였다.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에 대한 침략과 강점,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황군》은 《욱일기》를 휘두르며 수백만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고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었었다.

《황군》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직접 보고 체험해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들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죄악에 대해 고발, 성토하고있다.

하지만 아베일당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를 제32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공식 사용하겠다고 날뛰고있으니 이것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휘날리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것을 세계앞에서 선언한것이나 같다.

국제올림픽력사에는 히틀러파쇼도당이 베를린에서 진행된 올림픽을 인류를 반대하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수단으로 삼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여있다.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광신자들이 히틀러파쇼분자들이 한것처럼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을 국제평화를 해치는 불순한 놀음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망동이다.

국제사회계는 올림픽을 불순한 정치의 롱락물로 삼으려는 일본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자명남

들출수록 악취만 풍기는 부패정당

최근 《자한당》내부에서 자녀부정부패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있다.

원내대표 라경원의 아들론문특혜의혹이 터진데 이어 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사건이 련이어 제기되여 사회 각계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라경원의 아들은 고등학교때 미국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의학론문을 제출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론문제출과정에서 라경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을 리용하였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일반 청년이 그것도 고등학교학생이 대학실험실을 리용한다는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더우기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라경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을 뻐젓이 리용하며 론문까지 제출하였으니 남조선청년들과 학부모들이 《특혜의혹》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터네트상에서 《라경원 아들 론문청탁》, 《라경원 아들》 등의 검색어가 네티즌들의 관심사로 되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라경원 자한당원 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요청!》이 수십만명을 넘어섰겠는가.

장제원의 아들음주운전사건은 또 어떤가.

얼마전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협의로 경찰에 단속되였다고 한다. 문제는 자기 친구에게 돈을 찔러주고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들장나고만것이다.

그야말로 각종 특혜와 특권,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자한당》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들이다.

여기에 황교안의 아들특혜의혹사건,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 특혜취업사건 등 《자한당》것들의 각종 부정부패의혹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패거리들은 저들의 죄악은 어물쩍 덮어버리고 도리여 남을 물고늘어지며 《국회》에서 란동을 부리는가 하면 1인시위를 한다, 《해임건의안》을 낸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대고있다.

《자한당》패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죄악을 덮어버리고 어떻게 하나 래년 《총선》에서 살아남아보려는 정치간상배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자한당》에 침을 뱉고 돌아선 민심을 돌려세울수는 없는 법이다.

들출수록 악취만 풍기는 《부정부패당》, 《쓰레기당》, 《민생외면당》이 갈 곳이란 력사의 시궁창밖에 없다.

강룡철

《자한당》의 친일매국의 행적 (4)

친일역적질로 기생해온 특등매국노

집권 전기간 친일매국행위에 열을 올린 리명박 《정부》에 일본언론들이 붙인 호칭이 바로 보기 드문 《친일파정부》이다.

그만큼 리명박의 집권기간은 추악한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있다.

리명박으로 말하면 일본 오사까에 태를 묻고 《쯔기야마 아끼히로》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리우며 《일본인녀성의 몸에서 삐여져나온 사생아》라는 추문이 따라다닌 민족불명의 인간 오작품이기에 그는 집권 전기간 일본에 아부굴종하며 상전의 요구라면 그 무슨짓도 가리지 않았다.

리명박의 친일굴종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일본정부 《특사》자격으로 남조선에 날아든 전 일본수상 모리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여있으면 오늘이 불행해질수밖에 없다.》,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새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여있다.》고 아양을 떤 사실을 놓고서도 알수 있다.

당시 리명박을 직접 만나본 일본의 고위당국자들도 한결같이 역도의 친일성에 《희망을 가지게 되였다.》, 《정말 놀랐다.》고 하면서 탄성을 질렀다.

2008년 리명박의 《대통령》취임식에 현직, 전직수상들인 후꾸다, 나까소네, 모리를 포함한 일본고위 《축하단》이 참가한 사실만 보아도 일본이 리명박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리명박의 친형인 리상득이도 《리명박은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내놓고 말할 정도였다.

바로 이런 친일주구이기에 리명박은 《대통령취임사》와 《3.1절기념사》 등 여러 기회에 친일망발을 거침없이 뇌까렸으며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에 서슴없이 나섰던것이다.

리명박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감정에 도전하여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집권기간 일본과 수십차례에 달하는 회담을 벌리면서도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나 군국주의부활 등 예민한 정치, 군사적문제들은 단 한번도 회담탁우에 올려놓지 않았다.

반면에 《수뇌왕복외교》 간판밑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친일굴종자세를 더욱 드러냈다.

리명박은 2008년 7월 일본과의 회담때에는 당시 수상이였던 후꾸다가 일본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침서인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기다려달라.》는 망발을 쥐쳐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4월 일본이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것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정식 발표하였을 때에는 《조용한 외교》를 떠들면서 못본척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리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인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철면피한 책동을 묵인, 비호해주었으며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체결놀음을 벌려놓는 등 위험천만한 군사적결탁행위도 꺼리지 않았다.

리명박의 체질화된 친일매국적기질과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북침전쟁책동에 의해 그가 집권한 기간 일본 《자위대》무력이 처음으로 일장기를 날리며 조선반도에 진출하여 뻐젓이 미군, 남조선군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위험천만한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청산대신 경제보복의 칼을 빼드는 등 오만무례하게 나오고있는데는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떠들면서 일본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고 령토강탈책동을 묵인, 조장시켜온 《자한당》의 이전 조상인 리명박의 추악한 친일매국행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신일국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굴지의 종합야금기지로 전변되기까지

1970년에 들어와 사회주의 대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대적인 대공업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특히 자립경제의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대야금기지, 동력기지, 대기계생산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를 비롯한 공업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공업기지들을 강화하는데서 첫째가는 공격대상으로 정해주시고 큰 힘을 넣으신것은 김책제철소(당시)확장공사였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 기본건설전선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면 김책제철소확장공사는 이 전선의 중심고리였다. 이 공사를 완공해야 강철고지를 비롯하여 6개년계획에 예견된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김책제철소는 경제의 생명선이였다.

무진장한 철광석매장지인 무산광산(당시)을 가까이에 끼고있는 김책제철소를 현대적인 대야금기지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그 준비사업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힘있게 내미시였다.

이 야금기지확장공사로 말하면 아직 공화국에서 해본적이 없는 방대하고 아름찬 공사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완공할것을 결심하시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가시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벌릴수 있는 준비사업을 빨리 끝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2(1973)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고 대야금기지건설을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펴시였다.

회의에서는 김책제철소확장공사에 총공격전을 들이대며 1차적으로 공격할 대상은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대형용광로, 소결로, 해탄로 건설이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제철소확장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의 전기간 몸소 진두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공공정표를 책상우에 놓으시고 매일같이 작업실적을 보고받으시면서 걸린 문제들도 일일이 다 풀어주시며 공사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공사장에 로력이 모자랄 때에는 끌끌한 청장년들을 보내주시고 설비조립이 딸릴 때에는 비날론공장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이름난 설비조립공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제관품제작이 걸렸을 때에는 황철과 강선의 오랜 기능공들을 보내주시고 기계가 모자라면 기계공장에 과업을 주시여 즉시에 만들어 보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벅찬 총공격전의 나날에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방의 엄혹한 추위속에서 일하는 건설자들이 녕려되시여 깊은 밤에 먼거리전화로 일군들에게 건설자들을 더 뜨뜻이 입히고 더 잘 먹이며 잘 쉬우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평양체육관에서 전국공업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건설자들의 대표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남들이 2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련속조피기지하구조물공사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두달남짓한 기간에 끝내고 가장 어려운 공사의 하나였던 열간압연직장기초공사도 주체적인 방법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 단 한해동안에 해제낀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토론하는것을 들으시고 맨 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센 숨결로 약동하고있던 1974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제철소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자들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대형용광로건설장, 강철직장과 압연직장건설현장을 거쳐 련속조피장의 자동조종실에 오르시여 10리 long 포벌에 펼쳐진 열간압연직장 건설장전경을 둘러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대와 잡초만 무성하던 황무지에 거창하게 일떠선 열간압연직장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이것이 생명선이다, 우리가 이것을 제꺼야 살아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에 요구되는 대상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의 교시를 통하여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거의 해마다 건설장을 찾으시여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면서 공사전반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곳 건설자들과 로동자들은 총공격전의 세찬 불바람을 일으켜 남들이 수년씩 걸려야 한다는 대형용광로를 자기 힘으로 반년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우고 1975년 새해를 맞으며 첫 쇠물을 뽑아냈다.

그리고 이해 7월에는 새로 건설한 해탄로에서 첫 콕스를, 9월에는 전로직장의 첫 전로에서 쇠물을 뽑아냈으며 년말에는 현대적인 열간압연직장건설을 기본적으로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선철이나 뽑아내던 제철소가 강철, 압연강재까지 련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굴지의 종합야금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만능어선도 자체의 힘으로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남포시에서 서쪽으로 수십리 떨어진 곳에 남포대경수산사업소가 있다. 나라의 서쪽 한끝에 위치하고있지만 오늘 남포대경수산사업소라고 하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선구자집단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크지 않은 사업소가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자체의 힘으로 크고작은 고기배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관심속에 조업한 사연깊은 수산물생산기지이다.

몇해전 이곳 수산사업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동시에 배무이라는 통이 큰 일판을 펼치였다. 당시의 사업소형편에서 이것은 아름찬 목표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소의 박승일지배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배무이를 자체로 무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것을 종업원들스스로가 깨닫게 하고싶었다.

박승일지배인은 선박설계기관들과 배무이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찾아가 자기가 먼저 하나하나 기술을 배우는 한편 여러곳을 다니면서 선박건조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한명한명 찾아냈다. 그런 속에 처음으로 사업소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고기배를 무어냈다.

비록 크지 않은 배였지만 이들이 얻은 소득은 컸다. 그 나날 배무이에 없어서는 안될 자체의 인재력량을 마련하였으며 귀중한 경험도 쌓았다.

이에 신심을 얻은 사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받들고 대담하게 현대적인 고기배를 뭇기로 하였다.

전문배무이기지가 아닌 사업소에서 높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기배를 만들어낸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박승일지배인은 이 어려운 과업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해낼것을 결심하고 기술자, 종업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지배인의 대담한 결심에 고무된 기술자, 종업원들은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배무이를 해보면서 얻은 경험을 살려 사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서해의 어장조건에 맞는 《황금해》계렬의 고기배들을 무어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 무은 《황금해》계렬의 고기배들은 여러가지 어로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만능어선들이다.

이룩한 성과는 컸지만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만족을 몰랐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들은 먼바다에 나가있는 어로공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기울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종합봉사선 《문명 1》호와 《문명 2》호를 또다시 무어냈다.

어로공들을 위한 급양편의 및 의료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고 고기배들에 대한 연유와 음료수공급, 잡은 물고기들의 급동처리를 위한 설비들이 구비되여있는 봉사선단이 무어짐으로써 먼바다에 나가있는 어로공들에 대한 해상봉사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사업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철재료를 리용한 현대적인 1 800hp쌍선체고기배를 무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선박건조분야에서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는 쌍선체고기배는 500hp이상의 큰 배 두척으로 진행하던 먼바다저예망작업을 한척으로도 능히 할수 있는 만능어선이다.

두개의 꼭같은 선체를 나란히 세우고 갑판을 일체화시키는 방식으로 건조한 쌍선체고기배는 어장진출과 어로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어로활동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물고기잡이량을 훨씬 늘일수 있는 등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면서 선체선형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조립전투를 60여일만에 결속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남포시 해사감독처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배무이전투장으로 달려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갔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쌍선체고기배를 새로 무어내고 종합적인 어로감시 및 지휘체계를 확립한 이곳 사업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가고있다.

쌍선체고기배를 무어내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아무리 목표가 높고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이들의 자력갱생의 귀중한 창조물인 고기배들은 지금 서해중심어장을 타고앉아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는 나라의 전반적교육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앞당겨 건설하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기자는 천리마구역 천리마기술고급중학교의 리영란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오랜 교육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리영란: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한 흥분된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세찬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주체교육발전의 휘황한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이자 곧 경제강국건설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고 하시면서 현시기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초등 및 중등교육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의 지름길은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지난 시기 후대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쳐온 긍지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자책감도 컸었다.

기 자: 방금 학교를 돌아보면서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리영란: 우리 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학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2월 우리 학교(당시 강선중학교)를 찾아주시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

리영란교장

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학교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잘 갖추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하여 학교의 교육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시켰으며 교육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수단들과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 실험기구들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교수에서 다매체편집물, 가상 및 증강현실기술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계발시키고 응용능력, 실천능력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결과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여 교수내용을 더욱 깊이 파악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있는 지역의 기술고급중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려 금속생산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생산현장을 통한 실습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이 산지식으로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체육관과 수영장, 토끼사와 지리실습장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교사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학생들의 실물교육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가 해놓은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모든 교원들이 나라의 국력강화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속도이라는것을 자각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겠다.

세계적인 교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대혁명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는것이다.

이곳 과학기술원의 1층에 자리잡고있는 전시장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첨단기술제품의 보급 및 류통을 사명으로 하는 교류마당으로 되고있다.

수백㎡의 넓은 면적에 조형예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친근한 감을 주게 꾸려진 전시장에는 수백여점에 달하는 첨단기술제품들이 실물이나 모형, 도해판 등의 형태로 전시되여있다.

각종 전자제품들과 선박모형들, 첨단분석설비들, 여러가지 성능높은 수감 및 측정장치들을 비롯하여 전시된 하나하나의 제품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고있는 자력갱생의 고귀한 창조물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1층의 전시장은 단순히 첨단기술의 보급과 교류를 위한 장소이기 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할수 있다.

최신과학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모든 관리운영을 현대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지능화되여있는 미래과학기술원에는 첨단기술제품의 개발과 생산, 제품검사를 위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개발실, 실험실들이 꾸려져있다.

희유금속표준물질개발생산구역, 전자수감장치개발생산구역, 태양전지개발생산구역, 나노제품개발생산구역, 정보기술제품개발생산구역 등이 층별로 배치되여있고 가치있는 새 기술제품종자들을 탐색하는 인터네트교류구역도 있다.

맨 웃층에는 국제 및 국내 학술교류와 새 기술제품생산교류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학술토론회장과 소회의실, 면담실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려져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혁신적인 탐구와 연구로 첨단산업창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나가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는 미래과학기술원에서는 대학생들이 과정안에 반영된 전공실습을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자기가 구상, 설계한 제안들을 직접 생산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며 앞날의 개발창조형인재로 준비해가고있다. 박사원생들도 심도있는 학술연구과정을 통하여 가치있는 학위론문을 완성하고있다.

또한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연구와 생산의 순환체계속에서 현실적의의가 큰 첨단기술제품들을 부단히 개발하며 교육과 현실, 과학연구와 실천의 관계를 밀접히 해나가고있다.

미래과학기술원에서는 전자수감장치생산기지를 비롯한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들을 갖추어놓고 대장균분석기, 고압무효전력보상장치, 가스측정수감부, 수질종합측정장치를 비롯한 19종의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이곳에서 개발생산한 각종 전자수감장치들은 그 실효성이 높아 호평을 받고있다.

리준기 분석기구연구소 소장은 미래과학기술원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개발생산한 적외선흡수식 탄소류황분석기, 원자발광스펙트르분석기와 같은 제품들이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도입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미래과학기술원의 서창호 부원은 발전된 나라일수록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전략과 정책들을 세우고있으며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면서 대학을 연구형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에 떠받들려 현대적으로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날로 발전하는 조선옷

—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장을 찾아서 —

얼마전 평양에서 각지의 옷설계가들과 제작자들,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조선옷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교원, 연구사, 창작가, 기술자, 기능공, 학생들과 가정부인들이 만든 700여점의 여러가지 남녀조선옷, 결혼식옷, 어린이옷과 수십점의 갖신류가 출품되였다. 민족적향취가 한껏 넘쳐나는 조선옷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조선옷에 대한 긍지에 넘쳐있었다.

세상에 자랑높은 조선옷

전시회장에서 기자는 조선옷이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시대적미감에 맞게 나날이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전시회 심사성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예로부터 조선옷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독특한 형태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지 않는가.

심사원1: 그렇다. 우리의 민족성이 진하게 배여있는 조선옷은 형태와 색갈이 다양할뿐아니라 독특하고 아름답다.

조선옷의 특징은 그 형태나 색, 무늬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한것이다. 조선옷이 다른 나라 옷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비례로 이루어진것, 옷이 부드러운 선들로 이루어진것, 률동성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옷의 고유한 형태적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조선옷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차이가 큰데도 불안한 느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독특한 형태적특징을 나타내는것은 짧은 저고리의 몸체와 련결된 적당한 폭의 두 소매나 가슴중심에 드리워진 두가닥의 고름이 안정된 균형을 보장하기때문이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조선옷들은 현대적미감과 우리 민족의 풍습, 미적감정에 맞게 색갈들을 연하고 부드럽게 조화시킨것이 특징이다.

평양시 중구역종합양복점에서 출품한 흰색의 저고리에 연푸른색의 치마, 강원도에서 출품한 록두색의 저고리에 분홍색의 치마,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많은 조선옷들이 연하고 깨끗한 색갈들로 조화를 맞추어 제작되였다.

기 자: 우리 민족옷의 색갈과 무늬장식수법들이 나날이 세련되여가고있다는것이 알린다.

심사원2: 이번 전시회에 많은 조선옷설계가들과 제작자들이 섬세하고 우아한 무늬들로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내놓았다.

조선옷들에 형상된 무늬소재로는 목란꽃, 소나무, 진달래, 버드나무잎, 복숭아꽃, 살구꽃과 같이 친근감을 주는 소재들이 많이 쓰이였다.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연하고 부드러운 색갈의 천들을 배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장식수법으로 가공한 옷들을 내놓아 조선옷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잘 살리였다.

심사원1: 옷차림에는 시대와 사회상이 반영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시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나라의 벅찬 현실은 옷차림문화를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에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옷은 그 고유한 형태로 해서 기발이 없이도 국적을 알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옷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임을 떳떳이 자부할수 있게 하는 조선옷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옷의 형태와 색갈, 무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의 피복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제작한 세상에 자랑높은 조선옷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을 살려

이어 기자는 울긋불긋 화려한 꽃바다를 방불케 하는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 어디를 보아도 조선옷가공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조선옷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인 색조화, 장식 등의 예술적형상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린 우아한 조선옷들과 비단천과 모시천에 갖가지 꽃들을 형상한 조선옷들이 많았다.

손수놓이, 그림그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식기법을 리용하여 만든 결혼식옷, 명절옷들이 특색있게 전시된 평양시편의봉사관리국 편의기술준비소 미래조선옷점 전시대는 참관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박금선 미래조선옷점 책임자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할 조선옷을 만들면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 깃, 고름, 동정과 같은 조선옷의 고유한 형태적요소들을 잘 살리면서도 저고리도련선, 소매배래기선의 가공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여 조선옷가공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여러가지 결혼식옷과 일상옷을 섬세한 가공기법들로 완성한 남포시 강서구역조선옷점에서 출품한 조선옷들도 호평을 받았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형상한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치마로 색조화를 맞추고 거기에 국화 목란꽃과 나비장식을 한 치마저고리는 참관자들속에서 조선옷이야말로 볼수록 우아하고 민족적색채가 진한 매력있는 옷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전시회에서는 녀성들의 치마저고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브로치들도 전시되여 이채를 띠였다. 보석을 물고있는 백조를 형상한 브로치, 은방울꽃장식브로치, 꽃다발을 형상한 브로치 등 평양일용품공장에서 만든 다양한 형태와 색갈의 브로치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녀성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홍취나는 민요가락이 울리는 속에 진행된 옷본보기출연, 조선옷설계와 가공방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습과 경험발표회 등 이채를 띤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장은 찾아오는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거렸다.

본사기자 리 명 찬

천연건강음료—감서약수

강서약수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장수와 병치료에 아주 좋은 천연건강음료로 널리 알려져있다.

강서약수의 발견에 대하여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먼 옛날 한 농부가 농사지을만한 땅을 얻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날개를 상한 백학 한마리가 어느 한 물웅덩이에 내려앉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런데 백학은 물로 날개를 몇번 씻고 그 물을 마시더니 언제 날개를 상했던가싶게 다시 하늘로 기운차게 날아오르는것이였다.

농부가 그곳으로 달려가보니 물웅덩이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퐁퐁 솟구쳐오르고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농부는 그 물을 마셔보았다. 그랬더니 목직했던 배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것이였다. 이 소문이 삽시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였다.

그때부터 이 샘물은 그 지방의 이름을 붙여 강서약수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력사문헌 《강서군지》에는 약 300년전 당시 강서면 정화리(오늘의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약수샘이 발견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강서약수는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습관성변비, 만성간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는 천연탄산광천수이다. 국가적관심속에 이곳에는 료양소와 광천물리치료학연구소가 생겨나고 약수터결에는 현대적인 병약수공장이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해오고있다.

2011년 3월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영향으로 이곳 약수의 샘줄기가 끊어진적이 있었다.

그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서약수용출이 멎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약수를 어떻게 하나 다시 나오게 하여 인민들이 계속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긴급대책과 함께 약수를 찾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멎어버렸던 강서약수는 다시 솟구쳐오르게 되였으며 용출량도 종전보다 더 많아졌다.

강서약수를 맛본 외국인들도 저마다 이 약수야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보물 약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1982년에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된 강서약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등록증서와 품질인증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증서를 받은 순수하고 깨끗한 리상적인 천연건강음료이다.

본사기자

우리 선조들이 즐긴 공놀이경기

오늘 사람들은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들이 유럽에서 현대체육종목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그 기원을 따져보면 멀리 고구려사람들의 전통적인 놀이에서도 그것을 찾아볼수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놀이가 《격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우리 선조들의 공차기였다.

이미 세나라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격구를 즐겨 놀았다고 한다.

격구에서 파생된 우리 민족의 전통경기놀이로서 《타구》와 《포구》를 들수 있다.

《타구》는 골프와 지상호케이의 전신이고 포구는 롱구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다.

《타구》는 지금의 골프처럼 일정한 거리에 구멍을 파놓고 1격, 2격, 3격으로 구멍속에 공을 처넣는 형식으로 하였다. 이 《타구》가 인민들속에서 지상호케이처럼 변화되여 가을걷이를 한 후 사람들은 논바닥에 꼴문을 세워놓고 주걱막대기를 휘둘러 나무공을 치며 놀았다.

세나라시기에는 《격구》의 변형으로 꼴문의 두 기둥우에 구멍이 뚫린 판자를 올려놓고 그 구멍에 그물을 늘어뜨린 후 거기에 공을 던져넣는 롱구형태의 공놀이도 있었는데 이것을 《포구》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공을 가지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며 생활을 즐기였다.

본사기자

팔 우 노

팔우노는 11세기에 박원작이라는 사람에 의해 창안된 일종의 기계활이다.

팔우노에 대해서는 《무경총요》와 《무경절요》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로 묶어진 세개의 큰 화살에 맨 활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을 때에 불화살이 발사되게 되여있었다.

이때 활줄을 뒤로 당기는데는 소 8마리가 내는 힘만큼 큰 힘이 들어야 했으므로 그 이름을 팔우노라고 불렀다.

거대한 힘으로 발사된 불화살은 화약가스의 분사힘에 의하여 더욱 가속되므로 그 속도와 타격력은 대단히 컸다.

팔우노는 그 구조와 원리로 미루어보아 그 이전시기에 있었던 3궁노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그 성능이 개선된것으로 보아 많은 발전을 이룩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멸종위기종의 저어새 무리로 관찰

최근 평안남도 문덕군에 위치한 철새보호구에서 전지구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무리로 관찰되였다.

따오기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3 000여마리밖에 안되는 희귀한 새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보호구들에서는 이 새가 10마리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생물다양성연구소 과학자들이 동식물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30여마리를 관찰하였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마리수의 1%이상에 달하는것으로서 문덕철새보호구의 자연지리적위치와 철새서식조건의 유리성을 다시한번 립증해주고있다.

문덕철새보호구(1995년에 설정)는 지난해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람사르대상지목록)에 등록되고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였으며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의 련결망지역으로 등록되였다.

여기에서는 22종의 세계적인 위협종 물새들과 쇠기러기를 비롯한 전지구적 혹은 동아시아지역 마리수의 1%이상에 달하는 물새들이 서식하고있다.

특히 봄, 가을철이행시기에는 오리, 도요류 등 120여종에 8만여마리의 물새들이 이곳에서 살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동서해연안에 30여개의 철새 및 습지보호구들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관심속에 그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건강상태를 말해주는 손발톱

전문가들은 손발톱의 상태를 통해 폐와 콩팥, 간과 관련한 문제들과 관절염, 비타민 및 광물질부족증, 물리적스트레스, 영양실조, 암 등을 밝혀낼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실례로 빈혈증과 마른버짐때 손발톱에 자그마한 흠채기들이 생긴다. 손발톱의 절반이 광택을 잃으면 피속의 알부민수치가 낮다는것을 말해준다.

산소결핍증때에는 손발톱이 파래진다. 전염성심내막염때에는 손발톱밑의 피부부위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

먹는 음식에 비타민과 칼시움, 단백질이 부족하면 흔히 손발톱이 부서지며 철분이 부족하면 오목해지는 후과가 초래된다.

어느 한 젊은 녀성은 손톱을 다듬다가 권고를 받고 의사를 찾아간덕에 암을 발견할수 있었다고 한다.

손발톱에 생겨나는 수평선은 물리적스트레스의 징표이다. 그것들은 주로 화학료법을 받은 후에 생겨난다.

본사기자

닭알의 효능

닭알은 열량이 많은 식품으로 간주되고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닭알을 2알 먹어도 콜레스테롤수치가 높아지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식사에 닭알을 포함시켜도 몸까기에 방해로 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닭알 흰자위가 의약품 못지 않게 고혈압치료에 도움을 준다는것도 밝혀졌다.

비결은 닭알 흰자위에 들어있는 독특한 펩티드 RVPSL에 있다고 한다.

밝혀진데 의하면 이 물질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 효과는 고혈압치료약 캅토프릴을 적은 량 사용할 때와 거의 맞먹는다고 한다.

또한 아침식사때 닭알을 먹으면 온종일 입맛이 조절된다고 한다.

본사기자

지명과 그 유래

선산이 원산으로

원산이라는 이름은 작은 어촌마을인 원산진(나루진)에서 유래되였다.

고구려시기에는 이 마을을 마늘모양으로 생긴 산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마늘 선》자에 《메 산》자를 합하여 선산이라고 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마늘 선》자 대신에 《등글 원》자에 《메 산》자를 결합하여 원산이라고 하였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원산이라고 하였는데 《원》자를 《등글 원》자 대신에 《으뜸 원》자로 바꾸었다.

원산항은 갈마반도와 호도반도, 응도, 려도, 신도 등의 여러 섬들때문에 물결이 잔잔하며 썰물과 밀물의 차이도 심하지 않아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항구로 되고있다.

원산에는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송도원과 명사십리가 있다. 유적으로는 명적사가 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떡은 내가 먹었다》

옛날 우둔한 남편이 떡 세개를 얻어가지고 와서 안해와 함께 각각 한개씩 먹으니 한개가 남게 되였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절반씩 나누어 먹자고 말하니 안해가 반대하였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말을 하지 않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통채로 먹자요.》

《그렇게 하자구.》

그리하여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있는데 공교롭게 도적이 들어왔다.

도적은 주인들이 자기가 두려워 말을 못하는줄 알고 집에 있는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유유히 밖으로 나갔다.

그제서야 안해가 더는 참지 못하고 《도적이야!》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뻐하며 말했다.

《옳지, 떡은 내가 먹었다.》

사화

군장산과 로적봉 (3)

글 강 정 구, 그림 채 대 성

그로부터 몇달이 지나갔다. 식량이 떨어진 이곳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울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파수를 보던 젊은이들이 삿갓을 쓰고 허름한 조선옷차림을 한 웬 사람을 잡아왔다. 그 사나이는 자기를 장단사람이라고 하면서 왜놈들에게 부모처자를 다 잃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부모처자들의 원쑤를 갚으려 하던 참에 이곳에서 왜적들과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즉시 지체없이 찾아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수상하였다. 우선 발음이 정확치 않고 장단에 집이 있다고 하면서도 장단과 그 부근 지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파수장은 이놈이 틀림없는 왜군의 렴탐군인줄 짐작하였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참 잘 왔습니다. 이제 우리 대장군께 보고드리겠으니 여기 파수막에서 좀 푹 쉬십시오. 우리 함께 원쑤를 갚읍시다.》

이 말을 들은 그자는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줄 알고 기뻐서 갑삭갑삭 절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틀림없는 렴탐군이라 생각한 파수장은 곧이 사실을 좌상로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좌상로인은 생각이 깊었다. 한동안이 지나자 로인은 입을 열었다.

《내 그놈을 좀 리용해보려고 하네. 이제 파수장은 그놈에게 가서 아직은 장단사람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 더 심문하란다더라고 말하게.》

파수장은 곧 좌상로인의 말을 《장단사람》에게 전하였다.

《장단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까매졌다. 원래 참을성이 없는것은 왜인들의 기질이라 이자는 몹시 조급해하면서 두서없이 이말저말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장단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기만 했다.

왜군의 밀정 《장단사람》을 파수막에 붙잡아두게 한 좌상로인은 그 처리문제를 놓고 마을사람들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그놈이 무엇을 렴탐하려고 기여들었는가 하는것부터 념두에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겠네.》

좌상로인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애젊은 한 청년이 입을 열었다.

《군사와 식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렴탐하려고 기여들어왔을거예요.》

그 뒤를 이어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제놈들이 쉽게 기여오를 수 있는 곳이 없을가 하는것도 렴탐목적의 하나로 될겁니다.》

《저는 우리의 사기가 어떠한가 하는것도 알아보고 또 군률도 렴탐할수 있겠다고 봅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파수장도 자기 생각을 보태였다. 이렇게 하여 여러 의견들이 종합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정확히 세워질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좌상로인의 지시를 받은 젊은이가 《장단사람》을 찾아가서 대장군이 지금 부른다는 말을 전한 뒤 그를 데리고 산언덕을 올랐다.

젊은이는 한곳에 이르자 손을 들어 우를 가리키며 저기에 대장군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젊은이가 가리키는 산마루에는 아담한 루각이 세워져있고 5백개도 더 되는 층계가 그곳까지 뻗어있었다. 그리고 그 층계 좌우에는 창을 비껴든 군사들이 늘어서있어 얼핏 보기만 해도 엄엄하였다.

첫 계단앞에 이르자 한 무사가 대장군이 조회를 하려고 장수들을 불렀으니 대기막에 가서 기다리라고 일러주었다.

젊은이는 곧 《장단사람》을 아담한 방이 여러개가 잇닿아있는 아늑한 집으로 안내하였다.

《장단사람》은 이 방에서 한 장수를 만났다. 그 장수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누구를 호되게 꾸짖는 소리였다.

《이놈아, 1만 5천명도 더 되는 군사들을 먹일 군량인데 로적가리를 지키는 파수병이 졸다니 그게 될 말이냐.》

꾸중을 듣는 사람이 무어라고 대답하는데 소리가 낮아 가려들을수 없었다.

《장단사람》은 군사가 1만 5천명이라는 말에 놀라 눈이 휘둥그래졌다. 우렁찬 목소리가 또 울렸다.

《로적가리를 지키는 파수병이 졸다니… 왜놈들이 달려들어 로적가리에 불을 지르면 우리 군사들이 대체 무얼 먹고 싸운단 말이냐?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

《예,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률이 엄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압니다. 허지만 사실 일이 그렇게 된것은 어제 소 250마리를 잡고 몸이 곤한데다가 술을 조금 먹었더니 그만…》

군률을 어긴 군사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그다음 말은 너무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렴탐군은 소를 하루에 250마리나 잡는다는 말에 또 펄쩍 놀랐다.

파수막에서 흰밥에 소고기국을 푸짐히 먹은 이자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고보니 이곳 산일대에는 군사가 굉장히 많고 식량 또한 넉넉하며 군률도 매우 엄한것이 분명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